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4면)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지구민원 현장점검

채승우 송파구의원(더불어민주당,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은 지난 9월 21일(월) 오전 10시 문정초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송이로32길 일대를 방문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같은 지역구인 박지호 의원(국민의힘,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과 송파구청 도시교통과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여건을 살폈다.



채승우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보행안전과 주민 생활편의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에 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지호 의원도 “통학로 개선사업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